

신화를 통해본 신라토기문화의 감수성

Shilla Earthenware Culture's Sensitivity Observed at a Viewpoint
of Mythology

주저자: 박경희 (Park, Kyung Hee)

강원대학교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신화에 나타난 조형요소

III. 신라토기에 상징된 신화적 조형

IV. 신라토기문화에 나타난 무위자연적 미의식

V. 결론

참고문헌

(Keyword)

Mythology, Sheer naturalistic consciousness of beauty, Shamanism

논문요약

신라신화에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그리고 김알지신화가 있으며, 이 신화에는 알, 백마, 태양, 우물, 용, 뱀 등 여러 가지 주술적이면서 샤머니즘적인 조형요소가 나타난다. 이 조형요소들은 말머리 장식 뿔잔, 알이나 박과 같이 둥근 대형 항아리, 토기 표면에 장식된 밝은 빛을 상징하는 원점문과 거치문, 고배 다리에 물결을 상징하는 파상무늬, 금관에 붙어 금빛을 상징하는 영락이 달려 있는 토기, 용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토기 서수형 주자 등 신라토기의 형상이나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신라토기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신라인들의 무위자연적인 미의식, 무관심하다싶은 소박한 미의식 그리고 어떤 정확한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부정형의 미의식이 주술적이면서도 샤머니즘적인 분위기와 함께 조화되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예술작품에 중요한 조형요소가 되고, 현재의 사상의 흐름 또한 작품에 임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말하자면 신라토기가 신라시대를 대변하듯 현대의 작품 또한 개인 놀이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창작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ere have existed Parkheukgerse mythology, Suktalhae mythology, and Kimalji mythology, in which there appear various formative elements symbolic of incantation and shamanism, such as eggs, white horse, the sun, well, dragon, and snake. These formative elements are represented typically as shapes or patterns characteristic of Shilla earthenware; for example, horse-head-decoration horn-shaped cup, round large-size pots such as eggs or gourd, round dotted pattern and wedge-shaped pattern, wave-shaped pattern on the leg of Gobe[a kind of cup], earthenware having Yongrak[a kind of

decorations] suggestive of gold light emitted from a gold crown, an auspicious-animal shaped Juja[a kind of pictographic blue porcelain] representing a birth of a dragon, etc.

Namely, it can be found that Shilla people's consciousness of beauty with their sheer naturalism-seemingly rather indifferent and humble-while pursuing something natural in making Shilla earthenware and their indefinite sense of beauty without hanging on to something precise are in good harmony with the incantatory and shamanist atmosphere.

Such facts give a solemn message to those of us living in modern times that the reality we are facing also could be an important formative element in creating art of work and the current stream of ideology as well as an attitude toward creating art of work.

In other words, like Shilla earthenware represents the periods of Shilla, we also have to do research and create art of work on a systematic basis in order that our art of work in modern times could represent our current ages, not limited to the level of playing game for fun.

1. 서론

신라토기는 굴가마[登窯] 속에서 1,0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로서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가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연질토기에서 경질토기로 변화되고 그릇의 두께도 얇아진다.

그릇의 형상을 지닌 토기 이외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신라 토우는 흙으로 빚어 만든 여러 동물 형상과 인형(人形) 등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있거나 토기의 목항아리 또는 굽다리 접시의 뚜껑에 조그맣게 붙어 있기도 한다. 이러한 토우들은 가야금을 타는 사람·사냥하는 인물·성교(性交)하는 장면·춤추는 장면 등의 일상생활에서 얻어진 소재가 내용이 되기도 하고, 개구리를 쫓는 뱀의 모습이나 여인과 성교하는 뱀의 모습 등으로 표현되어 다산(多産)과 풍요를 의미하는 주술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특히 신라토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투창(透窓, 구멍)¹⁾은 토기의 굽다리에 서로 엇갈려 뚫려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며, 대체로 신라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시작되어 몇 세기 동안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유방이나 영덩이를 크게 과장한 여성상이거나 임신한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토우는 주술적인 우상으로 만들어진 경우이고, 기마인물형토기와 배모양토기, 수레형토기 등은 문헌 이외 영혼을 명부(冥府)의 세계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의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죽은 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샤먼의 행위와 통한다. 엑스터시와 빙의(憑依)를 통해 영매(靈媒)의 역할을 하는 무당(巫堂) 즉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샤머니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신라의 시조신화인 박혁거세신화와 석탈해신화 그리고 김알지신화 등이 있는데, 신화에 등장하는 박, 말, 태양, 빛 등은 주술적이면서도 샤머니즘적인 조형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신라토기의 형상과 문양에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토기문화의 감수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라신화에 등

1) 권영필, 렌투스 양식의 미술, 세계절, 2002, 123쪽. 이 투창의 형식은 우리나라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스키타이와 흉노 같은 북방계 유목기마 민족들이 쓰던 취사도구인 동복(銅鑊)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북방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하는 구체적인 조형요소를 상세히 알아보고, 신화에 나온 조형요소와 실제 작품으로 남아있는 신라토기의 상징성을 연관 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II. 신화에 나타난 조형요소

신라신화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신화, 이국에서 와서 신라의 4대왕이 되는 석탈해신화, 그리고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되는 김알지신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신화들에서는 독특한 주술적이면서도 샤머니즘적인 조형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왕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진한 땅에 옛날 여섯촌이 있었다. 1은 ... 처음 하늘에서 표암봉(瓢巖峰)에 내려오니... 이씨(李氏)의 조상이 되었다. 2는... 처음 형산(兄山)에 내려왔으니... 정씨(鄭氏)의 조상이 되었다. 3은 ... 처음에 이산(伊山)에 내려오니... 손씨(孫氏)의 조상이 되었다... 4는 ... 처음에 화산(花山)에 내려왔으니... 최씨(崔氏)의 조상이 되었다... 5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이니... 배씨(裴氏)의 조상이다... 6은 명활산(明活山) 고야촌이니... 설씨(薛氏)의 조상이다... 위의 글을 상고해 보면 이 여섯 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²⁾

우리나라 건국시조신화는 국가체제를 성립시키는 왕의 출현 이전에 이미 하늘로부터 하강한 신성한 존재가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6부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특정한 산에 내려왔다는 것은 그 하강 주체들이 저마다 산 정상에 신시(神市)나 소도와 같은 신성한 제의적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³⁾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다양한 산들은 신라토기를 장식하는데 중요한 조형요소가 된다.

2) 一然, 三國遺事, 교문사, 1995, 64쪽. “辰韓之地, 古有六村. 一曰, 關川楊山村...長曰謁平. 初降于瓢巖峰...李氏祖...二曰, 突山高墟村...初降于兄山...鄭氏祖...三曰, 茂山大樹村...初降于伊山...崔氏祖...四曰, 崙山珍支村...初降于花山...崔氏祖...五曰, 金山加利村, 初降于明活山...裴氏祖...六曰, 明活山高耶村...初降于金剛山...薛氏祖...按上文比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

3)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천재교육, 1995, 200쪽.

...양산(楊山) 밑에 있는 나정(蘿井) 옆에 번개 빛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비치니 거기에 백마 한 마리가 꿰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자주 빛 알 한 개가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쪼개니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동자(童子)가 나왔다...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니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다. 이로 인하여 그 아이를 혁거세왕이라 이름하였다.⁴⁾

하늘에서 번개 빛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비추고 있었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신이한 존재가 강림(降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하늘은 곧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태양을 상징하는 원과 빛을 상징하는 가는 직선은 신라 토기를 장식하는데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또한 백마는 하늘을 날아 오르내리는 천마(天馬)로서, 천마의 출현은 신이한 존재가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은 자작나무 껍질 가운데에 흰색으로 말갈기와 꼬리털을 치켜세우고 하늘을 달리는 형상의 천마도를 그리고, 그 둘레에는 흰색과 붉은색·갈색·검정색 선으로 인동당초(忍冬唐草) 문양을 장식한 천마총에서 볼 수 있다. 이 신화에 등장한 말은 신라 토기에서 조형적으로 훌륭한 입체적인 모습과 선으로 표현하여 평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날 사랑리(沙梁里)에 있는 알영정(闕英井)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얼굴과 모습이 빼어나게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와 같았다. 이에 월성(月城) 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⁵⁾

알영의 모태는 사람이 아니라 용이며, 그 출산 방식도 성인들처럼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혁거세가 남쪽에서 하늘·빛·천마와 연관되어 출현한다면 알영은 북쪽에서 우물·용·할머니와 연관되어 출현한다. 왕이

4) 一然, 三國遺事, 교문사, 1995, 67쪽.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

5) 앞의 책, 69쪽. “是日, 沙梁里闕英井邊, 有鷄龍現而左脇誕生童女. 姿容殊麗. 然而唇似鷄觜. 將浴於月城北川. 其觜撥落.”

‘나정’가에서 출현하고 왕비가 ‘알영정’ 가에서 나온 것에서 신라에서는 우물이나 샘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물이나 샘은 모두 물을 말하며 물의 모습은 물결로, 그리고 그 형상은 파상문으로 표현된다. 이 신화에 등장하는 용이나 물결은 신라토기를 만드는 조형요소가 된다.

남산의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짓고 이들 두 성스러운 아이를 받들어 길렀다. 사내아이가 앞에서 나왔는데 그 알이 박[瓠]과 같아서 향리 사람들은 박[瓠]을 박(朴)이라고 했다.⁶⁾

신라에는 알평과 혁거세 등 시조들은 ‘박’ 또는 ‘표’로 상징되어 둥근 바가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혁거세가 알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생명 상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천마총 무덤 속에서 달걀 껍질이 많이 출토된 것도 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것을 환기시키는 종교·주술적 믿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알과 박의 형상은 모두 둥글고 원만한 형태의 조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어느 날 왕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후에 그의 죽은 육신(肉身)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그리고 왕후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합장(合葬)하려고 하니 큰 뱀이 나타나 못하게 방해해 하므로 오체(五體)를 각각 장사지내어 오릉을 만들고 능의 이름을 사릉(蛇陵)이라고 하였다.⁷⁾

죽은 몸뚱이가 흩어져 떨어졌다는 것은 그 영혼이 몸을 박차고 나갔다는 뜻이며, 사람들이 흩어진 시체를 모아서 합장(合葬)하려 하자, 큰 뱀이 나타나서 이것을 방해하고, 몸의 다섯 부분을 제각기 나누어 장사지내고 무덤을 만들어 오릉(五陵)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황폐강교수는 혁거세의 죽은 몸뚱이가 공중에서 흩어져 떨어진 사실과 이를 제각기 매장한 사실을, 신성한 왕

의 시체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의 풍작을 보장한다는 원시 제의와 관련된 신화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시베리아 샤먼(shaman)들은 장례 때 주검의 사지를 찢어서 제각기 매장하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장례 방식이 샤먼을 재생시킨다고 믿는 까닭이다. 혁거세와 같은 고대의 왕이 정치적 군장이자 종교적 사제자로서 일종의 샤먼 구실을 하였다면, 그의 장례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혁거세의 승천과 그 주검의 기이한 추락, 그리고 뱀의 합장 방해 사실과 그에 따른 오릉의 조성은 농작물의 풍요와 다산을 주술적으로 보장하는 농경 제의의 신화적 자취라 하겠다.⁸⁾ 이 신화에서 뱀이라는 조형요소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신라 토우에 나타나는 뱀의 형상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니고 있다. 샤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국사기』 2.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해차차웅이 즉위하였다<차차웅은 혹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한다>. 김대문(金大問)은 말하기를, ‘이는 방언으로 무당을 이른다. 사람들은 무당으로써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공경하여 드디어 존장자를 칭하여 자충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⁹⁾

남해왕은 신라의 2대왕이면서 무당이라고 한다. 제정 일치의 시대로서 무당은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상의 존재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재이다. 샤먼은 하늘과 통하는 존재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존재이며, 행동도 일반인이 생각해서 하는 것과 하늘과 통한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을 받아 신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은 작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작업하는 순간은 마치 하늘과 통해 신들린 사람처럼 아무 의식 없이 작업에 빠져들게 되어 그 모습을 샤먼의 신들린 모습과 통한다고 보여 진다. 즉 계획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접신 한 것과 같은 상태로 작업에 들어감을 말하며 신라토기에 붙여진 여러 토우의 형상이나 토기 표면에 장식된 기법에서

6) 앞의 책, 68쪽. “營宮室於南山西麓。奉養二聖兒。男以卵生。卵如瓠。鄉人以瓠爲朴。故因姓朴。”

7) 앞의 책, 70쪽. “理國六十一年，王升于天。七日後，遺體散落於地。后亦云亡。國人欲合而葬之。有大蛇逐禁。各葬五體爲五陵。亦名蛇陵。”

8)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천재교육, 1995, 229쪽.

9) 金富弼, 三國史記, 명문당, 1995, 41쪽. “南解次次雄立, 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尚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 爲慈充.”)。”

이와 같은 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제4대 탈해왕에 대한 신화가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영평(永平) 3년 경신(庚申) 8월 4일에 호공(瓠公)이 밤에 월성(月城) 서리(西里)를 가는데 크고 밝은 빛이 시림(始林) 속에서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었는데 그 구름 속에 황금의 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큰 빛은 궤에서 나오고 있었으며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은 이러한 상황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친히 그 숲에 행차하여 그 궤를 열어 보니 사내아가이 있었는데 누웠다가 바로 일어났다. 이것은 마치 혁거세의 고사(故事)와 같으므로 그 말에 따라 그 아이를 알지(闕智)라고 이름 지었다. 알지란 곧 우리말에 아이를 뜻하는 말이다. 그 아이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며 기뻐해서 뛰여 놀았다. 왕이 길일(吉日)을 택하여 태자로 책봉했으나 알지는 그 자리를 과사왕(婆沙王)에게 물려주고 왕위는 오르지 않았다...신라의 김씨는 알지에서 시작되었다.¹⁰⁾

김알지신화에는 구체적으로 여명을 알리는 닭 울음 소리까지 등장한다. 김알지신화가 닭의 신화적 상징성을 혁거세신화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시림(始林)은 신라 금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신라 금관은 고구려나 백제의 외관들과 달리 나무를 도안화시킨 산(山)자 모양의 장식을 세워 두고 둥근 금제 영락을 나뭇잎처럼 달아 두었다. 이 영락은 어둠을 뚫고 막 떠오른 아침 해의 밝은 빛이 숲 속에 황금색 빛살처럼 쏟아져 내리는 숲 속의 신비한 경관을 그릴 수 있으며, 김알지신화의 시공간인 계림 숲의 여명을 상징한다. 금관에 달린 영락은 밝은 빛과 계림 숲의 신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훌륭한 조형요소로서 신라토기에서 발견 된다.

이상에서 혁거세신화와 탈해왕신화, 그리고 김알지신

10) 앞의 책, 79쪽. “永平三年庚申. 팔월사일,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 有紫雲 從天垂地. 雲中 有黃金櫃, 掛於樹枝. 光自櫃出. 亦有白雞. 鳴於樹下. 以狀聞於王. 駕行其林. 開櫃 有童男. 臥而即起. 如赫居世之故事. 故因其言. 以闕智名之. 闕智 卽鄉言小兒之稱也....土(王)擇吉日. 冊位太子. 後讓於婆娑. 不卽王位...新羅金氏 自闕智始.

화에는 신성을 상징하는 여러 산, 하늘의 자손내지는 신이한 존재를 상징하는 태양이나 둥근 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우물 혹은 샘, 하늘의 사신인 천마, 신묘한 기운을 상징하는 번개 빛, 신성한 존재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는 용, 신비한 행동을 하는 뱀 등의 여러 다양한 조형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신라토기에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면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신라토기에 상징된 신화적 조형

토우는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다산(多産)과 풍요(豊饒)를 기원했던 명기(明器)의 일종으로 사람모양을 한 것과 동물모양을 한 것이 있다. 사람모양의 토우에는 여자·남자·가야금 뜯는 사람·춤추는 사람 등이 있으며 특히 성기(性器)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 많다. 동물모양의 토우에는 개·말·멧돼지·코끼리 등이 있는데 만물새는 매우 단순하고 순간적으로 만든 것이기는 하나 각 동물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라 토기의 형태나 여러 조형들은 먼저 살펴보았던 신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실제의 신라 토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박혁거세신화에는 혁거세가 박과 같은 둥근 알에서



[그림 1] 토기항아리

부터 태어난다. 박처럼 둥글게 생긴 알의 형상은 마치 공처럼 둥근 몸체를 가지고 있는 토기항아리(그림 1)¹¹⁾에서 찾을 수 있다. 농경문화는 달의 차오름과 이지러짐에 바탕을 둔 음력을 중요시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곡모

신(穀母神)으로 섬긴다. 솟대 꼭대기에 새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새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새는 알을 낳고, 그 알은 곡식 낱알의 씨앗을 상징한다. 씨앗이 농경생활의 풍요를 가능하게 하듯이 날짐승의 알들도 생명의 번성을 나

11) [그림1] 토기항아리, 4세기경(신라), 경북 경주 황오동 출토, 높이 60cm, 입지름 19cm, 국립경주박물관.

타낸다. 혁거세가 앞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생명 상징과 얽혀 있다. 천마총 무덤 속에서 달걀 껍질이 많이 출토된 것도 혁거세가 앞에서 나온 것을 환기시키는 종교·주술적 믿음을 반영한다.

박혁거세신화에 등장하는 백마는 하늘을 날아 오르내리는 천마(天馬)이며, 천마의 출현은 신이한 존재가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백마의 형상을 토기 말머리장식 뿔잔(그림 2)¹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뿔잔은 원추형의 아랫부분을 도구로 대충 다듬은 말머리에는 입과



[그림 2] 토기 말머리장식 뿔잔

귀, 눈과 같은 세부가 간결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되었다. 잔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몸체를 구부림으로써 잔과 말의 상반신이 양 방향으로 들리도록 고려하였고, 이 잔을 안정감 있게 세우기 위해 뒷부분에 두 대의 작은 다리를 받쳐 놓았다.

토우장식 긴목 항아리 토기(그림 3)¹³⁾는 토우(土偶)가 부착되어 색다른 장식 효과를 보여 주는 독특한 신라 토기의 하나이다. 문양은 목 부분에 두 줄씩 3단으로 구획한 현문(弦紋)을 두고 그 사이에 다섯 개의 톱니를 가진 시문 도구로 파상문(波狀紋)을 서로 엇갈리게 선각(線刻)하였는데, 이 형상은 산들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그림 3] 토우장식 긴목 항아리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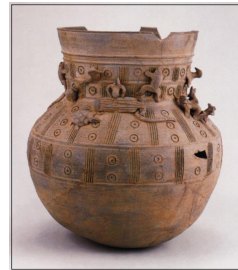
혁거세왕 신화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6부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특정한 산에 내려왔다는 문구와 연결해볼 수 있다. 그리고 파상문 사이에 붓 뚜껑과 같은 도구로 원문(圓紋)을 찍었는데, 원문은 하늘 즉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목 부분에 두 명의 사람, 세 마리의 뱀과 개구리 등 작은 토우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사람모양의

12) [그림 2] 토기 말머리장식 뿔잔, 5세기경, 보물 598호, 부산 북천동 고분 출토, 높이 좌 14.4, 두 12.1cm, 동아대학교 박물관.

13) [그림 3] 토우장식 긴목 항아리 토기, 5-6세기, 국보 195호, 경북 경주 노동동 출토, 높이 40.5cm, 입지름 25.5cm, 몸지름 32.5cm, 국립경주박물관.

토우는 남근(男根)을 드러내고 지팡이를 잡은 채 구부정하게 서 있으며, 뱀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개구리의 한쪽 뒷다리를 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토우로 장식된 항아리나 고배 등은 인체의 과장된 표현이나 아주 사실적인 성행위의 장면 등에 비추어 풍요한 생산력을 뱀, 개구리의 부착으로 벽사(辟邪)의 뜻을 담아 소중하게 보관하여야 할 씨앗[種子]의 저장 용기이거나 또는 제사용의 술을 담던 그릇으로 생각된다.¹⁴⁾



[그림 4] 토우장식 긴목 항아리 토기

토우장식 긴 목 항아리 토기(그림 4)¹⁵⁾는 다양한 토우들과 선각의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최대의 장식 효과를 거둔 신라시대의 몇 안 되는 장경호 가운데 하나이다. 목으로부터 몸통의 중간 부분까지 몇 줄의 현문대(弦紋帶)를 배치하여 마치 천상과 지상세계의 구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이로 다섯 개의 톱니가 있는 날카로운 도구로 일정하게 수직의 음각선을 내려 그어 혁거세신화의 내용에 나오는 태양의 빛 또는 번개 빛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비추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음각선 사이에는 컴퍼스와 같은 도구로 작은 원(圓)을 찍어 태양을 상징하여 하늘나라에서 신이한 존재가 강림(降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목의 하단부와 어깨에 부착된 여러 종류의 소형 토우들인데 남녀 인물, 개구리, 뱀, 거북이 새, 짐승 등이 이야기를 전개하듯이 돌아가면서 부착되어 있다. 토우 중에는 거문고를 타는 임신한 여인, 남녀의 성교 모습 등이 있어 다산(多産)과 생식(生殖), 풍요를 기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 볼 수 있다.



[그림 5] 동물문 굽달린 긴목 항아리 토기

14)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5, 62쪽.

15) [그림 4] 토우장식 긴목 항아리 토기, 5-6세기, 국보 195호, 경북 경주 계림로 30호분 출토, 높이 34cm, 입지름 22.4cm, 몸지름 30.6cm, 국립경주박물관.

동물문 굽달린 긴목 항아리 토기(그림 5)¹⁶⁾는 직립에 가까운 긴 목과 공처럼 둥근 몸통, 밖으로 벌어진 다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에는 날카로운 음각선의 사격자문(斜格子紋)이 있다. 이 장경호에는 몸통 중간까지 음각 장식된 동물문이 있는데, 상단에는 말 다섯 마리, 하단에는 말 네 마리와 사슴 한 마리, 그리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짐승 두 마리 등 모두 열두 마리를 선으로 그려 놓았다. 둥근 항아리 하단부는 넓게 벌어진 다리를 통해 안정감을 이루며 이 다리 사이에는 상·하단에 걸쳐 엇갈리도록 배치한 사각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항아리의 둥근 모습은 밖의 형상을 닮아 등글게 하고 그 표면에 혁거세신화에 등장하는 천마의 모습을 여러 마리로 표현하여 신라인의 천마에 대한 호감을 친근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토우장식 뚜껑달린 고배(그림 6)¹⁷⁾는 의식 용기 중



[그림 6] 토우장식 뚜껑달린 고배

하나로 추정되는 고배(高杯)로서 신라시대 전반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주로 무덤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는 보편적인 기종(器種)이다. 뚜껑 중앙부에는 사각의 투창이 있는 작은 대족(臺足)이 손잡이처럼 달려 있고 상면에는 상하 양단에 걸쳐 삼각형의 선문양이 엇갈린 채 음각되어 있다. 여기에 세 개의 토우가 부착되어 있는데 각각 사람, 거북이, 새의 형상이다. 토우는 비록 간단하게 손으로 빚어 사실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오른쪽을 향해 도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한 장면을 포착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¹⁸⁾

배(杯)는 사발처럼 벌어진 그릇과 이를 받치고 있는 긴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체 아래에는 톱니 문양인 거치문(鋸齒文)이 역삼각형 형태로 음각되었고 길게 뻗은 다리에는 돌출한 두 줄의 현문(弦紋)을 중

16) [그림 5] 동물문 굽달린 긴목 항아리 토기, 5~6세기, 전(傳) 경북 울주 삼광리 출토, 높이 41cm, 입지름 17.9cm, 밑지름 24.1cm, 국립중앙박물관.

17) [그림 6] 토우장식 뚜껑달린 고배, 5~6세기, 국보 195호, 경북 경주 황남동 미추왕릉 지구 출토, 높이 20cm, 입지름 11.8cm, 밑지름 9.5cm, 국립경주박물관.

18) 최건 외, 토기·청자 I, 예경, 2000, 84쪽.

심으로 직사각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이 고배는 흔히 얇은 소재들을 모아 만든 특수한 목적의 토기로 추정된다. 이 토기에 장식된 거치문은 태양의 빛이 뻗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혁거세가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삼각형상의 거치문 형식에 빗금, 즉 사선으로 메꾸는 방법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토기의 의장 문양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동경문양과 유사한 수법이다. 또한 고배의 다리에 장식된 물결의 모습은 파상의 형상으로서 신화에 등장하는 우물이나 샘의 물결을 상징한다.

토기 등잔(그림 7)¹⁹⁾은 신라토기의 화려함을 보여 주



[그림 7] 토기 등잔

는 대표적인 예로서, 고배(高杯) 형식의 토기에 다섯 개의 작은 잔을 올려놓고 영락(瓔珞)과 투창으로 장식을 하였다. 다섯 개의 작은 잔 바닥에는 모두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은 속이 빈 튜브형의 대롱처럼 생긴 고배의 구연(口緣)과 통해 있고, 구연 아래쪽으로도 구멍이 뚫려 있어 기름을 어느 한 잔에만 부어도 대롱을 통하여 기벽(器壁)을 따라 고배 바닥까지 흐르도록 만들었다. 고배의 바닥 부분은 상면 중앙에 큰 구멍 하나와 주변에 심지를 꽂기 위한 장치로 다섯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이 토기에는 다섯 개의 영락 장식이 달려 있는데, 영락은 김알지신화에 등장하는 조형요소로서 어둠을 뚫고 막 떠오른 아침 해의 밝은 빛이 숲 속에 황금색 빛살처럼 쏟아져 내리는 숲을 상징한다. 말하자면 나무를 도안화한 산(山)모양의 장식을 세우고 둥근 금제 영락을 나뭇잎처럼 세운 신라의 왕관은 신화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만듦으로서 왕권의 신성성을 지닌 주술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기 기마인물형 주자(그림 8)²⁰⁾는 삼국시대에 제작된 기마인물형 토기 중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다. 전

19) [그림 7] 토기 등잔, 5~6세기, 경북 경주 금령총 출토, 높이 16.4cm, 밑지름 9.7cm, 국립중앙박물관.

20) [그림 8] 토기 기마인물형 주자, 5~6세기, 국보 91호, 경북 경주 금령총 출토, 높이 23.5cm, 길이 29.4cm, 국립중앙박물관.

체적인 분위기는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 인물이 아름답게 치장한 말 위에 차분하게 앉아 있다. 말의 몸통은 통통하게 만들어 안을 비워 두었으며 가슴 앞쪽에는 물을 따르기 위한 출수구(出水口)가 솟아 있다. 말 엉덩이 위쪽에는 뾰족한 침이 장식된 잔대(盞臺)가 붙어 있는데 잔대의 아래쪽에는 몸 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넣는 입수구(入水口)로 활용된 듯하다.

신라토우의 형상들의 표현 기법과 성형(成形)은 다소 유치하고 고졸한 것도 있으나, 이 토기의 경우는 매우 사실적이며 북방계 기마 민족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조각의 예를 보여 준다. 또한 천마춤의 백마가 혁거세를 하늘에서 인간 세상까지 모셔온 하늘의 사자이고, 왕의 무덤



[그림 8] 토기 기마인물형 주자



[그림 9] 토기 서수형 주자

속에 말의 장비에다 천마를 그린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의 후대 왕으로서 혁거세처럼 천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길 기대하는 주술적 염원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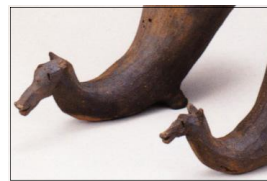
21) [그림 9] 토기 서수형 주자, 5~6세기, 보물 636호, 경북 경주 미추왕릉 출토, 높이 14cm, 앞뒤 폭 18.3cm, 밑지름 5.5cm, 영남대학교 박물관.

(盤口形)의 입수구가 있어 물을 넣을 수 있게 했으며, 용의 배 부분에서 사선으로 뻗은 출수구로는 물이 빠져 나가도록 하였다. 몸의 옆면에는 모두 6개의 귀고리형 영락(瓔珞) 장식이 달려 있어 화려함을 더하며 나팔처럼 벌어진 상태로 이 토기를 지탱하고 있는 굽다리에는 사각형의 투창을 뚫어 장식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용의 형상을 가진 토기에서 혁거세의 부인 알영이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과 연관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 존재는 석탈해인데 탈해의 아버지 함달과왕은 용성국(龍城國)의 왕으로서 탈해는 용성국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용의 형상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이상 신라 토기에 나타난 말머리 장식, 알이나 박과 같이 둥근 대형 항아리, 긴목 항아리에 붙어 있는 토우들과 표면에 장식된 혁거세의 밝은 빛을 상징하는 원점문과 거치문과 직선들, 말문양이 선각으로 시문된 긴 목 항아리, 고배의 뚜껑에 토우가 장식된 알영이 태어난 물가의 물결을 상징하는 무늬, 임금이자 무당이 썼던 금관에 붙어있어 금빛을 상징하는 영락이 달려 있는 토기, 세계에서 드물게 조형이 뛰어난 토기 기마인물형 주자, 알영이 용의 몸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석탈해가 용성국의 아들이었음을 상징하는 듯한 토기 서수형 주자 등은 단순한 조형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헌 속의 신화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신화의 내용이 신라 토기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IV. 신라토기문화에 나타난 무위자연적 미의식

신라토기를 보면 신라인의 기질이 투영된 미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각배의 형식을 가지고



[그림 10] 그림 2의 부분

있는 토기 말머리장식 빨간(그림 10)은 입자가 고운 점토를 물레로 성형하여 잘 생긴 원추형을 만든 후 아랫부분을 칼로 다듬은 머리에는 입과 귀, 눈이 웃는 표정으로 해학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칼로 깎은 자국이 잘 정돈하지 않아 그대

로 남아 있다. 또 잔이 안정적으로 서있기 위해 두개의 작은 다리를 대충 적당히 받쳐 놓았다. 만일 말과 원추형을 잇는 부분의 칼자국을 잘 마무리 했다면 다른 이미지의 작품이 탄생했을 텐데, 적당히 마무리하는 신라인의 태도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무위자연적인 미의식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제사와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한 듯한 긴목항아리(그림 11)의 긴 목에는 다소 조잡함에도 불구하고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은 토우들이 여기 저기 대충 붙어있다. 작은 토우들은



[그림 11] 그림 3의 부분

두 명의 사람, 세 마리의 뱀과 개구리인데, 사람은 과장된 남근(男根)을 드러내고 지팡이를 잡은 채 구부정하게 서있으며, 뱀은 흠으로 적당히 말아 개구리의 한쪽 뒷다리를 물려하고 있다. 토기의 표면에는 다섯 개의 톱니를 가진 도구로 적당히 그은 파상문에서, 그리고 파상문 사이사이에 둥근 도구로 원을 찍었으나 젖은 흠이 찍힐 때 생긴 흔적을 다듬지 않고 겹친 부분은 겹친 대로 그대로 둔 것에서 정리하지 않고 생긴 대로 두는 무관심한 부정형의 미의식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토우들과 선각의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최대



[그림 12] 그림 4의 부분

의 장식 효과를 거두고 있는 긴목항아리(그림 12)는 목으로부터 몸통의 중간 부분까지 현문대를 적당히 배치하였다. 토우들은 임신한 여인이 가야금을 뜯는 모습, 남녀의 성행위 장면,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 새, 오리, 거북 등이 목의 하단부와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토우들은 젖은 흠을 적당히 누르고 말은 흠을 적당히 붙어 형상을 만든 것으로 어떤 세밀함을 느끼기 보다는 적당히 주물러 순간에 만들어 진 것으로 굳이 잘 생기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세속을 떠난 정신세계의 불가사의를 표현하려는 주술적인 분위기를 지닌 부정형의 미의식을 알 수 있다.

말과 사슴의 무리를 2단으로 그린 목긴 항아리와 어깨에 말이 빙 둘러 그려진 긴목항아리(그림 13)는 목 부분에 사선(斜線)으로 격자무늬를 숨쉴 좋게 적당히



[그림 13] 그림 5의 부분

넣었다. 말은 등줄기의 갈기가 곤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슴은 길게 뻗은 두 뿔의 모양이 뚜렷하게 표현하였는데 이 동물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림은 간단한 선으로 대충 표현한 무위자연의 미를 표현하였지만 그 모습들이 자연스러워 숨쉴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4] 그림 6의 부분

의식 용기 중 하나로 추정되는 토우장식 뚜껑달린 고배(그림 14)는 사람, 거북이, 새의 토우가 손으로 대충 조물조물 만든 것으로 세심한 부분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정도이다. 몸체 아래에는 톱니 문양인 거치문(鋸齒文)이 역삼각형 형태로 음각되었고 길게 뻗은 다리에는 돌출한 두 줄의 현문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의 투창이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로 적당히 뚫려 있다. 어떤 의도된 느낌보다는 신의 원함에 부응하는 주술적인 분위기로 소박한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둥근 그릇 받침 위에 거북의 몸체, 용의 머리, 꼬리



[그림 15] 그림 9의 부분

등이 복합된 상상의 동물을 만든 서수형주자(그림 15)는 용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용의 목 줄기에 여섯 개의 흠을 똑똑 붙인 갈기와, 꼬리를 흠으로 말아 적당히 꼬인 듯하게 만들고 역시 갈기를 젖은 흠을 적당히 작게 만든 후 붙인 무관심적인 소박미를 볼 수 있다.

이상 신라토기에 나타난 신라인들의 미의식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신라인들은 토기를 제작함에 있어 장식을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잘하고자 하지 않는 무위자연적인 미의식과, 둘째로 세세한 표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거의 무집착이라 할 수 있는 소박한 미의식, 그리고 셋째로 형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려 하지 않는 무관심한 부정형의 미의식이 있었음을 다양한 신라토기들

을 통해 알 수 있다.

V. 결론

신라의 신화로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그리고 김알지신화가 있는데, 특히 박혁거세신화에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가 신라토기의 형상이나 문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대의 왕인 박혁거세의 아들 남해차차웅이 무당이였다는 점등은 샤머니즘이 신라 토기와 연관되어 개성 있는 미적안목으로 신라 특유의 조형으로 창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에 나오는 조형 요소 중 신라 토기에 나타난 말 머리 장식, 알이나 박과 같이 둥근 대형 향아리, 긴목 향아리에 붙어 있는 토우들과 표면에 장식된 혁거세의 밝은 빛을 상징하는 원점문과 거치문, 말 문양이 선각으로 시문된 긴 목 향아리, 고배의 뚜껑에 토우가 장식된 알영이 태어난 물가의 물결을 상징하는 무늬, 임금이자 무당이 썼던 금관에 붙어있어 금빛을 상징하는 영락이 달려 있는 토기, 세계에서 드물게 조형이 뛰어난 토기 기마인물형 주자, 알영이 용의 몸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석탈해가 용성국의 아들이었음을 상징하는 토기 서수형 주자 등은 단순한 조형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지닌 것이 아니라, 문헌 속의 신화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신화의 내용이 신라 토기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토기에서 신라인들의 미의식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신라토기를 보면 토기의 표면에 정리되지 않고 거침없이 그려진 선들, 그리고 세밀하지 않지만 동물들의 형상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한 신라인들의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런 조형태도는 무당이 신과 통합으로서 벌어지는 즉각적인 행동들과 동질의 것임을 알게 한다. 말하자면 샤머니즘적인 기질이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신라토기에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신라인들의 무위 자연적인 미의식, 무관심하다싶은 소박한 미의식 그리고 어떤 정확한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부정형의 미의식이 주술적이면서도 샤머니즘적인 분위기와 함께 조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신라신화에 등장하는 조형요소가

신라토기에 중요한 조형요소가 되고, 그 시대의 사상이 신라인들의 작품태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이 예술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으며, 사상의 흐름과 변화 또한 현대 작품 속에 내재되어 표현되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참고문헌

- 1) 권영필, 렌투스 양식의 미술, 사계절, 2002
- 2) 一然, 三國遺事, 교문사, 1995
- 3)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천재교육, 1995
- 4) 金富軾, 三國史記, 명문당, 1995
- 5)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5
- 6) 최건 외, 토기·청자 I, 예경, 2000

